

서울대학교 임학동문회 소식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 전공



발행인: 정을수

편집인: 박찬열

발행일: 2022년 5월 4일

제29호

회장의 글

드디어 2년여간의 암흑을 뚫고 평상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리 길지도 않았지만 짧지도 않았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었고, 차마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한편으론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지는 못했지만 반대로 혼자 무언가를 생각하고, 가족들과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COVID는 우리들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습니다. 취미와 기호도 바꿔 놓았고, 직업별로도 큰 부침이 많았으며, 심지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업종들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세계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 개인이 사회와 동떨어져 산다는 것이 현대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고, 늙어서 죽습니다. 불가에서 얘기하는 '찰나'에도 못 미치는 짧은 시간을 세상에 머무르다 한 줌의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들은 피하고,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한 인생이겠지요.

그런데 만나면 기쁘고, 얘기하다 보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그리 쉽지는 않겠지요. 만나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라야 봤자 기껏해야 혈연, 친구, 지연에 얽힌 사람들이겠지요.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좋은 인연이 종속 관계가 아닌 평등 관계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즉 이해타산이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문회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시절부터 이루어진 학연은 당연히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林學이라는 구심점까지 갖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관계는 없을 듯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할 얘기는 왜 그리도 많은지.....

학창 시절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등지에서 벌어진 그 많은 사고들(?), 연습림 실습 때 발생한 촌극들, 사랑에 배신당한 친구와의 술자리 소동, 미팅 나갔다 사고 치고 도망 다니던 기억 등등 엄청난 주제가 마주하고 있지요.

물론 컨닝하다 걸려서 F학점을 꺾찬 슬픈 추억도 있겠지만. 동문회에 나가 보면 온통 즐거운 얘기만 하게 되고, 행복 도파민이 마구마구 발산되지요.

재물이나 권력은 절대 무덤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남겨주고 간들 그들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늙어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될 듯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소풍 같은 인생을 만들어야겠지요.

자, 지금부터 동문회 소풍을 떠나겠습니다.

임학동문회 회장 정을수 올림

1. 동문회 활동 및 소식

■ 전기 동문회원증 전달식 및 장학금 수여식

2022년 전기 임학동문회 동문회원증 전달식 및 장학증서 전달식이 지난 2월 25일(금) 11시, 200동 1층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전기 졸업에서는

박사 1명, 석사 2명, 학사 13명이 영광의 학위기와 동문회원증을 전달 받았습니다. 동문회에서는 박찬열(88) 총무가 참석하여 동문회원증을 전달하였고, 졸업 축하와 새롭게 동문 회원이 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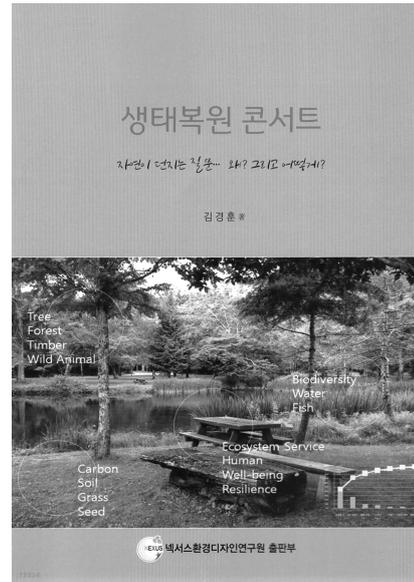
- ▶ 박사 : 이기문(산림공학연구실)
- ▶ 석사 : 이재우(산림보호학연구실)
김수비(산림유전육종학연구실)
김근효(수목생태학연구실)
- ▶ 학사 : 여동건, 정성엽, 김성혁, 윤여환, 정주영
김정서, 박성민, 이철원, 김승욱, 고종빈
함유진, 안소린, 김병찬

입학동문회에서는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여동건(13, 산림유전육종학), 한윤지(15, 산림유전육종학), 이철원(16, 산림공학), 김승욱(16, 경관보전계획 및 공간정보학), 고종빈(16, 야생동물학), 김병찬(18, 산림보호학) 6명의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2022년 상반기에는 동문회에서 6명에게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이번 장학금 전달은 민홍진(88) 동문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 김경훈(88) 동문 신간 소개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나무와 풀, 그리고 동물이 함께 존재하는데 이 모든 것은 생태계라는 커다란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반대로 말하면 생태계라는 커다란 그릇을 구성하는 것에는 꽃과 나무, 곤충과 같은 생명체가 있으며, 이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흙, 물, 공기와 같은 것도 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의 작은 요소일 뿐이다.

과연 22세기가 올 것이며, 인류는 22세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쩌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세대가 마지막 호모사피엔스가 되지 않는을까? 생태복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훼손된 자연을 되살리려는 노력이다.

이 책은 저자가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자연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별생각 없이 성과 위주로 진행하였던 프로젝트들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지켜보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써 내려간 글이다. 특히 훼손되기 이전의 특정 시점으로 되돌아가려는 과거 지향적인 접근 방식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으며,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는 일들은 예측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미래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생태복원 콘서트는 생태복원과 관련된 내용을 일반인이나 전공자들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식으로 구성하였다. 내용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1부 [왜]에서는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2부 [어떻게]에서는 생태복원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글 김경훈

동문의 글



김군보(90)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책임연구원(나무의사)

안녕하세요, 나무의사입니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건강을 진단하고 문제를 치료하는 전문가입니다. 2018년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내년 2023년 6월부터는 나무의사만 수목 진료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학과 출신이라면 ‘의사’라는 단어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일본에서 사용하는 ‘수목의’라는 명칭에서 가져왔습니다. 서양에는 아보리스트나 트리 엑스퍼트라는 딱딱한 이름도 있지만, ‘나무를 치료한다’ 따뜻한 감정을 담아서 나무의사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격은 법에 규정된 150 시간의 양성교육을 받은 후 1차와 2차로 구성된 자격시험을 봐서 취득합니다. 2022년 4월 현재 여섯 번의 시험으로 742명의 나무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나무의사와 나무병원의 법적 규정

생활권 수목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목 진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수준도 이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농약 살포나 가로수 관리는 시민들이 직접 접하는 현장인데 안전과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과 민원이 많습니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화된 진료에 대한

요구가 쌓이면서 오랫동안 정책적인 연구를 거쳐서 나무의사 제도가 나왔습니다.

나무의사법이라고도 하는 2018년 개정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이전의 나무병원 종사자는 2023년 6월까지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나무병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무병원은 진단 처방과 치료가 다 가능한 1종과 현장업무만 가능한 2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나무의사 2명, 또는 나무의사 1명과 현장기술자인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1종 나무병원만 남게 됩니다.

나무의사 시험 현황

이런 변화의 시기를 앞두고 2019년부터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매년 수천명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대략 1천여 개의 나무병원(1종 532, 2종 863개)이 있는데, 아직까지 나무의사 자격 취득을 못한 업체가 많아 내년 여름이면 수목진료 업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수목진료자들이 시험으로 걸러지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 내년까지 예정하는 배출 목표는 2천 명 수준인데 6회 시험까지 합격자가 742명(2022년 4월 현재) 뿐 이어서 내년까지는 난이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병원에 진출하고 싶은 동문이 계시다면, 지금이 도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권유 드립니다.

나무의사 시험에 도전한다면 어떻게?

최종 합격률이 10% 정도로 어렵고, 시험응시 전에 권역별로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양성교육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전국의 거점 국립대학교에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합니다. 교육 과목은 필수가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토양학, 농약학, 수목관리학, 법규 및 정책이고, 생태학과 안전 등의 소양교육이 들어갑니다. 산림자원학과에서 수목생리학과 토양학이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고, 병리와 해충이 산림보호학에 들어가니까 낯선 과목들은 아닐 겁니다. 산림자원학과 출신에게 유리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학부 전공시험에서 B- 정도는 받았다면 문제없이 합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산림청 홈페이지와 나무의사협회(<https://www.treedr.or.kr>)를 참고하십시오. 저는 산림자원학과 90학번으로 작년에 나무의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양성기관이기도 한 서울대학교 식물 병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수목진단관련 연구와 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동문동정

■ 애사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 김승욱(16)동문 부친 1월 18일 발인
- ▶ 임하수(92)동문 모친 1월 22일 별세
- ▶ 권원식(94)동문 부친 1월 28일 별세
- ▶ 홍성훈(84)동문 모친 2월 2일 별세
- ▶ 소윤석(84)동문 빙모 2월 3일 별세
- ▶ 임완주(88)동문 빙부 2월 13일 별세
- ▶ 임종환(82)동문 빙부 2월 22일 별세
- ▶ 한태호(83)동문 부친 3월 21일 별세
- ▶ 설아라(99)동문 부친 4월 9일 별세
- ▶ 장철환(86)동문 빙부 4월 14일 별세
- ▶ 이승근(93)동문 부친 4월 22일 별세

■ 경사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 ▶ 이상훈(75)동문 본인 1월22일 결혼
- ▶ 이내중(63)동문 영식 3월12일 결혼
- ▶ 김재현(84)동문 영식 3월27일 결혼
- ▶ 이준우(81)동문 영식 5월14일 결혼



3. 모교소식

■ 경관보전계획 및 공간정보학 연구실 소개

경관관리 및 공간정보학 연구실은 올해 2년차를 맞이한 신설 연구실입니다. 2021년에 부임하신 최혜영 교수님께서 연구실을 이끌고 계시며 현재 석사과정 1명과 학부연구생 2명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학부 전공교과목으로 ‘산림지리정보학 및 실습’, ‘경관관리학 및 실습’, ‘산림경관보전계획’을 맡아 강의하고 계십니다.

연구실의 주된 연구 목표는 경관생태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간단위 산림생태계의 보전가치 평가와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산림생태계는 기후변화, 대규모 벌채, 침입외래종 확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는 식생변화, 산림재해 거대화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주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연구 주제로 산림생태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산림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전략 계획,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자연기반해법 계획 연구 등을 수행하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 수립을 위한 정량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아고산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지리산을 중심으로 경관변화모델 기반의 추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최혜영 교수님은

국가적 규모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를 장기간 수행하고 계십니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으로 국가 단위의 생물다양성 분포 평가, 효율적인 보호지역 확장 계획, 식물종 그룹의 기후 네트워크 코리더 계획,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계시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의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실에서는 기후변화 레퓨지아(refugia) 분석 연구와 기후다양성 분석을 통한 보호지역 설정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산림경관의 이해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술교류활동으로 지난 2021년도에 한국환경복원 기술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여 2명의 학생이 학술논문발표를 하였고, 그중 1명이 최우수발표상을 받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국제학술교류 활동으로 미국생태학회(ESA)에 참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연구교류를 활발히 지속하고자 합니다.

산림환경학 전공의 새로운 연구실인만큼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지만 향후 학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임학 동문회의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히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주변에 새로운 연구 분야를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문회 회원님들께 다시금 찾아오는 봄처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주상(77) 교수 정년퇴임



정주상(77)
2022년 2월28일 퇴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주상(77) 동문은 1991년 서울대학교 산림자원

경영학 교수로 부임하여 학부 및 대학원의 산림자원 경영 관련 과목들을 강의하면서 당시 낙후되었던 임학의 내용을 크게 혁신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21세기 임학의 패러다임에 요구되는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고, 선진화된 임학의 개념이나 분석 방법론 등을 도입하면서 국내 임학관련 대학교육의 혁신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종다양성 및 기후온난화 등과 관련된 지구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념을 임업현장에서 실증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산림자원조사 및 모니터링 기법, 정보처리기법, 시뮬레이션 모델링기법, 의사결정론 등 당시의 임학분야에서 미흡했던 다양한 학술적 기법들을 도입함으로써 21세기 임업에 요구되는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임업의 고비용, 저효율의 산림수확체계를 개선하고, 저소득 임업의 소득 창출 제고를 위한 산림복합경영기법 등 산업적 관점에서 실무적 산림경영시스템에 중점을 둔 교육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이론적·추상적 산림경영학의 내용을 혁신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연구분야는 기존의 산림조사기법 개선을 위한 방법론 개발,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개발, 산림작업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역학 모델의 개발, 실시간 산불확산 예측 및 진화계획수립을 위한 시뮬레이션모델의 개발, 보속수확 및 보호 동식물 서식지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모델 개발, 산림경관 관리모델의 개발, 임업인의 경영실태조사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 양봉임업 주제의 6차 산업단지 조성 모델 개발, 산지전용 실태조사 및 예측 모델 개발, 산양삼 등 단기소득작목의 경영성과분석 모델 개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기능 개선을 위한 산림사업체계 의사결정모델 개발, 임산업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시뮬레이션모델 개발, 가선집재시스템 생산성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모델 개발, 경제림 육성단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체계 개발,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 보호구역관리를 위한 모델개발, 국토연구원 주관의 산지이용 규제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점 연구 등 산림경영 현장 혹은 정책중심의 문제

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임학회 및 한국산림공학회 정회원으로 약 5년간 한국산림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일본의 산림경영학회(FORMATH), 미국의 Systems Analysis on Foresry, 한·미·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국제학회의 정회원으로 한국측 대표로 재직기간 중 총 4회의 국제학회를 서울대학교로 유치하였고, 대회조직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내 임학의 세계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 부문의 발전을 위한 자문 등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알리는 말씀

■ 봄 소풍 안내

임학동문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됨에 따라 임학동문회에서 아래와 같이 봄 소풍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0년 5월 21일(토) 09시~16시

장소: 태화산 학술림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572)

대상: 동문회 회원 및 가족

행사: 학술림 탐방, 친교의 시간

회비: 10,000원 (동반 가족은 무료)

이동: 1) 버스 집결 1차 09:00시

선바위역 (지하철 4호선) 5번 출구

2) 버스 집결 2차 10:00시

곤지암역 (지하철 경강선) 1번 출구

3) 개별 차량 (주차 가능)

접수: 5월10일까지

(학번/이름/인원수/이동방법)

문자전송: 010-3266-3530

E-mail: forest.snu@gmail.com

※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정을수) 282-21-0369-157

■ 소모임 활성화: 동기모임을 동문회에서 지원합니다.

※ 동문들의 소모임 관련 소식이나 사진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문 소모임

서림골 : 서울대학교 임학과 골프모임



서림골은 서울대학교 임학과(산림자원학과, 산림과학부)와 인연을 갖고 있는 멤버로 구성된 동문 골프모임입니다.

한동안 COVID-19로 인하여 단체 모임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최근 완화되어 정상적인 단체 모임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경기 안성에 소재한 파인크리크CC에서 매월 네 번째 일요일에 정기 라운딩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혹서기 7월 제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월 정기라운딩 날에는 라운딩 전과 후에 점심 식사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있으며, 멤버 상호간 연락으로 개별적인 친목 라운딩이 수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행사로서 국내외의 의미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숙박을 포함한 일정으로 멤버간 친목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골프에 관심이 있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서림골 회장 고성호(83) 010-5269-2636
총무 김성중(93) 010-4714-0529

■ 장학금

동문회에서는 입학 및 입업발전에 기여할 후배들을 위하여 장학 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매 학기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부 졸업생에게 각 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6명(여동건, 한윤지, 이철원, 김승욱, 고종빈, 김병찬 학생)에게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장학 기금 추가 조성에 뜻이 있는 동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금에 참여하실 동문께서는 동문회로 연락 바랍니다.

■ 동문회비 납부안내

동문회 사업은 동문 여러분께서 후원하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됩니다. 동문회가 동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하여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비입금계좌

회비 5 만원 이상

국민은행(정을수) 282-21-0369-157

※지로입금페이지 (효율적인 통장관리를 위해)

■ 동문회비 사용처

- ▶ 년2회 발간되는 동문 소식지의 제작 및 발송
- ▶ 주소록 제작 및 발송
- ▶ 경조사 (근조기 발송)
- ▶ 후배 장학기금
- ▶ 동문 소모임 지원
- ▶ 동문회 운영비
- ▶ 기타 행사비용

■ 서울대학교 임학동문회

- ▶ 회 장 : 정을수(81, 010-5322-1245)
- ▶ 총무이사 : 김경훈(86, 010-8769-3388)
박은식(88, 010-4709-3271)
박찬열(88, 010-9104-8722)
박필선(90, 010-2305-0340)
-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200동 7201호 (간사 허잔)
- ▶ 연락처 : 02-888-4752 / forest.snu@gmail.com

■ 22대 동문회 임원명단

고 문	권오진(52) 서승진(72)	김사일(53) 장해석(73)	정윤환(56) 이원민(75)	정창현(57)	권오준(65)
명 예 회 장	김남균(78)				
자 문 위 원	김인기(60) 노의래(61) 한현수(64) 유명근(67) 박우철(69)	정희석(60) 전 양(61) 이돈구(65) 박용제(67) 최형순(69)	정수봉(60) 조남석(62) 강용찬(65) 현정오(교수) 윤영채(69)	박종열(원) 이경준(63) 임봉주(65) 박석희(68) 나상수(71)	전진표(원) 이원제(64) 고동희(66) 안승룡(68) 김형광(72)
회 장	정을수(81)				
부 회 장	고민종(83)	이 형(84)			
총 무 이 사	김경훈(86)	박은식(88)	박찬열(88)	박필선(90)	
감 사	임상준(교수)	배재수(87)			

■ 기대표

김영서(80)	010-3495-4141	김영철(90)	010-2007-3896	한 희(00)	010-3911-6592
장승호(81)	010-2408-5646	박병배(91)	010-3649-3389	배기강(01)	010-4670-7142
정남훈(82)	010-9003-5640	이승현(92)	010-5240-0653	김우성(02)	010-3573-5431
박 현(83)	010-5607-3557	이명연(93)	010-2370-5293	이경미(03)	010-5809-2838
이전웅(84)	010-6277-5353	정대호(94)	010-9098-8642	전덕하(04)	010-9291-8415
오천균(85)	010-4303-0759	황인청(95)	010-8421-1000	정종빈(05)	010-9881-1373
이용욱(86)	010-3369-4671	이상호(96)	010-3255-2972	최새미(06)	010-3089-3279
한장규(87)	010-4520-9108	구자춘(97)	010-2658-9780	박소희(07)	010-9457-5247
민홍진(88)	010-4932-8574	이관용(98)	010-3708-5482	유 승(08)	010-5762-2447
정윤식(89)	010-4995-6084	이동호(99)	010-2345-3122	장유림(09)	010-7720-2657
				김지수(10)	010-9127-4782

2022년도 연회비 납부 및 후원금 현황

(2022년 1월 1일 ~ 4월 30일 기준)

학번	이름	금액	학번	이름	금액
52	안봉원	50,000	84	소윤석	200,000
	우정식	50,000		우수영	50,000
55	김병윤	100,000	85	최진호	100,000
56	박동규	100,000	86	김경훈	100,000
57	우보명	100,000		김인식	50,000
	황재우	100,000		이용욱	50,000
58	박창호	50,000	87	박삼조	50,000
	이병훈	100,000		이정길	100,000
60	김진웅	100,000	88	김상환	50,000
	정수봉	100,000		노윤석	50,000
	정희석	100,000		민홍진	10,000,000
	최송웅	50,000		하동준	50,000
61	전양	50,000	89	성시홍	50,000
	전갑덕	50,000		신윤철	50,000
65	권오준	100,000		정윤식	100,000
	김동준	50,000	90	김군보	50,000
	이돈구	100,000		박필선	100,000
66	송유철	50,000	정용선	100,000	
67	김용환	50,000	91	김현철	300,000
	박찬홍	50,000		손희수	50,000
69	윤영채	100,000	93	김성중	100,000
71	이성규	50,000	94	권원식	50,000
73	구창덕	100,000		송유신	100,000
	이춘만	100,000		장윤호	50,000
74	장해석	200,000	96	신중훈	50,000
	김재원	100,000		이상훈	50,000
75	윤여창	50,000	97	박미선	100,000
76	이원민	100,000	00	김민수	50,000
79	박동균	100,000	03	조장환	100,000
	이장호	100,000	07	박소희	50,000
80	김영서	200,000		오필영	100,000
81	김병성	50,000	09	안철호	50,000
	송수빈	50,000	11	이권희	100,000
	윤호중	100,000	석71졸	박종열	100,000
	최한수	50,000	석85졸	이헌호	50,000
82	정도현	50,000	석03졸	강준원	50,000
83	김남중	100,000	석05졸	신한나	50,000
	김동찬	100,000	교수	박일권	100,000
84	강규석	100,000		최창용	200,000
	김재현	100,000		최혜영	100,000
			명예교수	현정오	100,000

합계 16,800,000

※ 2022년 연회비 납부 및 후원금을 보내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